

지지도·가상대결 모두 물어 단일후보 결정하자

文측 일단 수용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공방을 이어감에 따라 지역 정치권과 지역민들은 두 후보 측이 주장하는 방식을 절반씩 반영하는 절충안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두 후보 간 최대 쟁점은 여론조사 설문 문항이다. 문 후보는 최초 적합도 조사를 주장하다 지지도 조사

로 수정안을 냈지만, 안 후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의 양자 가상대결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과 지역민들은 후보 등록일(25~26일)을 불과 사흘 앞둔 상황인 만큼 두 후보가 한 발씩 물러서는 모양새로 대승적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경우 설문 문항은 문 후보가 주장하는 지지도 또는 적합도와 안 후보가 주장하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의 가상대결 등을 결합한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자가 원하는 방식, 혹은 모든 방식을 각각 실시해 최종적으로 단일후보를 계량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지방의원은 "양측이 주장하는 문구를 절반씩 사용해 이를 평균 수치로 환산,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 안일원 대표는 "어렵기는하겠지만, 두 후보가 합의하면 적합도-지지도·가상대결 등을 3가지 지표로 나눠 배점

을 둔다면 계량화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단일화 시한 준수를 촉구해 온 소설가 황석영씨를 비롯한 102명의 문화예술계·종교계 인사와 재야 원로들은 이날 안 후보의 가상대결조사와 문 후보의 적합도조사를 절반씩 반영해 단일화를 결정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이날 '적합도+가상대결' 형태의 여론조사 절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29일 오후 4시 나로호 재발사

나로호 3차 재발사가 오는 29일로 결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항공우주연구원은 22일 "나로호 3차 발사 관리위원회를 열어 기술적 준비 상황, 기상예보 등을 고려해 29일을 발사기 준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발사 예정 시간대는 오후 4시부터 6시55분까지며, 구체적인 발사 시간은 날씨와 우주환경 등을 분석해 발사 당일 오후 1시30분께 확정될 예정이다. 기상청 주관에 따르면 발사기준일인 29일 전남지방에는 비 예보도 없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나로우주센터에서는 한국과 러시아 연구진이 상단(2단)과 하단(1단)의 상태를 점검하고 연계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달 26일 발사 준비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 러시아로부터 새로 들어온 어댑터 블록은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과 25일에는 발사 운용 예행연습을 진행하고, 나로호에 실리는 나로과학위성 리허설도 발사기준일까지 매일 실시한다.

/오광목기자 kroh@

촉박한 단일화... 애타는 호남민심

"정권교체 물 건너간다"... 文·安 막판 담판 '대반전' 기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 막판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호남 민심의 우려가 깊어가고 있다.

특히, 정권교체를 위한 헌신보다는 여론조사 문구를 놓고 양 측이 팽팽한 대치와 반목을 거듭하면서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더라도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22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비공개 회동을 갖고 단일화 방식에 대한 담판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문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과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각각 브리핑을 통해 "두 분 회동에서 성과가

없었다"며 "한 걸음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 모처에서 1시간 30분 가량 비공개로 만나, 여론조사 문안, 여론조사 실시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문 후보는 이날 회동에서 지지도 방식의 여론조사를 내세운 반면 안 후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의 가상 양자 대결 방식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 실무진 협상에 이어 후보 간 담판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26일까지 이뤄져야 하는 후보 단일화는 최대 위기 국면에 봉착했다.

정치권에서는 아무리 늦어도 23일 오후까지는 협상이 마무리돼야 주말 동안 단일화 여론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날 밤 늦게 혹은 23일 오전, 두 후보가 다시 만나 최종 담판을 짓지 않느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26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과 함께 김영삼, 김대중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 정권 교체 호기를 놓친 지난 '1987년 대선'의 악몽마저 거론하고 있다. 이처럼 문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가 막판까지 길을 찾지 못하면서 호남 민심의 우려와 실망감도 깊어가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당장 이렇게 가다가는 정권 교체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후보 단일화가 '감동의 드라마'보다는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면서 국민적 실망감이 확산되고 있는데다 진통 끝에 단일화가 이뤄진다 해도 양 측 측근의 연대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최종 담판을 통해 막판 '대반전'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권교체를 위해 서로가 과감하게 양보하는 진정성을 보여 후보 단일화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민심은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보다는 정권교체를 통한 모두의 승리를 원하고 있다"며 "두 후보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의면한다면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랑의 연탄' 훈훈한 골목 22일 오후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저소득층 가정에 동아여중 학생 380여 명이 줄지어 연탄을 나르고 있다. 이 연탄은 학생들의 모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마련돼 8가구에 전달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단일화 이뤄달라" 유서 완주서 50대 투신 자살

'文·安 후보 단일화 토론방송'을 본 50대 남성이 '단일화를 해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신의 집에서 투신해 숨졌다.

22일 오후 5시10분께 완주군 용진면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집주인 유모(53)씨가 '단일화를 해달라'는 유서와

플래카드를 남긴 채 뛰어내렸다.

플래카드에는 '두 후보님께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유씨가 남긴 유서에는 "한 분은 수레를 끌어주고 한 분은 밀어주시면서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주십시오. 맘을 흘려 일하고도 힘들게 살아가는 농민을 보살펴 주십시오"라고 적혀있었다.

경찰은 유씨가 단일화 토론방송을 본 뒤 소주 2병을 마시고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형뉴스

'택시법' 처리 연기...버스 파업 철회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해 버스업계가 크게 반발하자, 여·야가 택시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3면〉 새누리당 이한구·민주통합당 박지현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22일 국회의장실에서 강창희 국회의

장 주재로 여·야 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합의에 따라 전국의 시내버스는 운행을 재개했지만 버스연합회는 택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버스 운행 중단을 곧바로 재개할 것이라고 밝혀 파행의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대학교행정대학원
2013학년도 모집분야
■ 석사과정(야간): 광주남, 여수남
■ 특별전형('12. 12. 5까지 접수)
■ 일반전형('12. 12. 19까지 접수)
■ 최고정책과정 ■ 관리자과정
전화 062-530-5196 FAX 530-2266
홈페이지: http://cnugpa.kr

광신대학교
2013 학부정시(가군)
■ 원서접수 12.21(금)~26(수)
2013 대학원 일반전형
■ 원서접수 11.12(월)~30(금)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www.r-golf.com

록펠러 멀티 회원권

- 1,680만원(멀티회원권), 3,360만원(프리미엄 멀티회원권) 회원 모집
- 보증금 예치기관 : 동양생명
- 동양생명 질권설정으로 입회보증금 안정성 확보
- 호남최초 부킹사이트 개설(VIP회원대우, 회원간 동호회 운영)

록펠러 멀티회원 혜택

- 기명 1인 입회
- 각 골프장별 매월 주중 3회(주말 및 공휴일 1회 포함), 그린피 30% 지원 (단, 토요일 및 공휴일은 20% 지원)
- 골프장 할인 행사시 할인된 금액에서 그린피 20% 추가 지원

록펠러 프리미엄 멀티회원 혜택

- 기명 1인 입회
- 각 골프장별 매월 주중 3회(주말 및 공휴일 1회 포함), 그린피 50% 지원 (단, 토요일 및 공휴일은 30% 지원)
- 골프장 할인 행사시 할인된 금액에서 그린피 30% 추가 지원

제휴 골프장

골드레이크 C.C, 아크로 C.C, 푸른솔 G.C, 화순 C.C(구, 클럽900 C.C)

부가 혜택 사항

- 광장골프존, 리얼스키인골프존, 지아인트골프존, 러스크리 골프장별 매월 5회 그린피 30% 할인
- 골라데이 인 광주 호텔 회원우대 특별할인(스튜디오스튜디오)
- 세계로 한방 병원 골프전문 클리닉, 한방진료, 입원 의료 혜택
- 미담 한의원 피부이음, 다이어트프로그램, 의료혜택
- 중소기업, 발의원 VIP 재무컨설팅 서비스 제공
- 통합부킹 사이트 전화할인 대우

록펠러회원권거래소(주)
멀티 회원권 문의 062)351-0095

동양생명 GA사업단
동양생명 보험문의 062)514-2842